

KIPA通信

PCT手數料 납부요령 發表

特許廳, 8月 10日부터 施行

特許廳은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및 商標法에 의한 特許料와 手數料의 징수규칙(상공부령 第689號) 第8條의 규정에 의거 PCT國際出願時 出願인이 납부할 國際出願手數料의 金額 및 납부요령을 發表했다.

全文을 紹介한다.

특허청 고시 84-16호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와 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상공부령 제689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4. 8. 10

特 허 청 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안)

1. 국제출원 수수료의 금액

가. 국제료

(1) 기본료

국제출원서가 30매 이하인 경우 227,000원 (국제출원서가 30매를 초과하는 경우 1매당 4,700원 가산).

(2) 지정료

지정국 1개국(동일한 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 지정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지정국으로 본다) 당 55,000원

나. 조사료

일본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167,000원. 오지리가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86,500원. 호주가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60,000원

2. 납부방법

가. 국제료

출원인은 한국외환은행 역삼동지점 WIPO 국

제사무국 구좌(57-13-6953-3)에 국제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

나. 조사료

출원인은 한국외환은행 역삼동지점 국제조사기관 구좌(57-13-6954-1)에 조사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외국商標사용 5年이상 不許

商工部, 技術導入신고제 지침마련

상공부는 기술도입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 지침을 확정, 외국상품 도입 계약기간이 5년을 넘거나 로열티 지급액이 순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를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기술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상품도입, 기술도입을 위장한 상품도입, 기술에 따르는 기술이 낙후됐거나 저급인 것, 상품만을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기술도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은 상품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이 지침은 또 기술도입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한 업체라도 이러한 잘못이 있을 경우 상공부는 20일안에 이들에게 수정요구를 하고 수정요구를 한지 60일이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기술도입을 못하도록 했다.

상공부의 이같은 지침은 외국인 투자개방조치로 기술도입도 종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불요불급한 상품 및 기술도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特許사용료 課稅價에 포함안돼

관세청, 유권해석서 밝혀

관세청은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단순히 특허

나 상표의 대가로 지불된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또 물품의 수입이 있더라도 해당 물품을 공개시장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물품을 원료로 만든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불되는 로열티도 과세 가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美國회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제품인 공중통신기기의 국내제작·판매권과 도면기술정보 기술지원등을 공급받기로 한 전기통신기기업체가 생산제품의 순매출액에 대해 5%의 특허료를 지불키로 한 경우 특허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와같이 유권해석했다.

관세청은 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는 수입물품이 특허나 상표를 가지고 있는지, 로열티를 판매조건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는지를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日「낡은 特許」開途國에 提供

내년부터 尖端기술도 無償으로

日本통신성은 85년부터 공업기술원등이 보유하고 있는 國家保有 特許를 개도국에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 이 특허기술 가운데는 태양광발전 및 해수의 담수화 기술 및 첨단기술이 포함된다는 것. 日本의 國有특허는 현재 공업기술원의 것만 하더라도 약 1만 1천건. 이 가운데에는 태양광발전이나 지역발전등 新에너지 기술 이외에 해수의 담수화나 미생물응용등 개도국의 자원 이용효율을 가능케 할 기술등이 들어있다. 특허를 무상공여하는 방법은 우선 국유특허리스트를 개도국에 소개하고 각국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으로 실용화를 위한 기술지도도 JICA(국제협력사업단)를 통해 추진할 방침. 이같은 조치의 배경은 그동안 日本의 국유특허는 실용화되는 일이 없

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개도국에 개방한다면 종래의 첨단기술 독점이란 비판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日, 特許특별회계도입

지난 7월부터

日本特許廳은 特許행정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特許특별회계를 도입했다. 日經산업신문에 따르면 이 特許특별회계도입에 의해 特許료 납부는 特許印紙로 불리는 새로운 印紙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日本特許廳이 特許특별회계를 창설한 이유는 特許출원 건수 증가에 심사·등록등 사무처리 능력이 뒤따르지 못해 심사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日本特許廳이 막대한 출원서류를 추방하기 위해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電算化시스템인 「페이퍼리스(Paperless)계획」은 이 特許특별회계를 제원으로 시작된다.

日本의 特許·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최근 수년이래 前年比 5~10% 비율로 증가, 年間 46만건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日本特許廳에 축적된 전체 特許정보는 현재 2천 8백만건을 헤아리며 출원된 特許의 신규성을 조사하기 위해 체크하는 문헌도 심사관 1인당 약 3만점에 이르고 있다.

新技術제품 保護승인 획득

三星반도체, 16비트 마이컴

三星 반도체통신이 개발, 생산중인 16비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SM-16이 최근 과학기술처로부터 국산신기술제품으로 보호 승인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 등에서는

同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三星 반도체 통신이 정부의 특정연구개발 과제의 하나로 지난해 한국電子技術연구소와 공동 개발에 성공한 이 SSM-16은 유닉스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채택하여 16명까지 동시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언어가 다양하며, 각종 시스템이나 주변기기와의 호환성·확장성이 뛰어난것이 특징이다.

— 加特許이용한 제 3 者의 對加수출 — 間接침해로 간주 —

캐나다에서 特許를 획득하여 고안된 제작품이나 장치를 제3자가 캐나다에 수출하는 행위는 캐나다 特許 침해로 인정되며, 수입품의 제조방법이 캐나다 特許를 침해한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제工所權 연구소(소장 金允培) 주최 「캐나다 特許 제도」 세미나에 강사로 訪韓중인 로널드 벨 캐나다 변리사 회장에 의해 밝혀졌는데 그는 캐나다 特許를 출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特許 제도가 美國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캐나다는 美國과는 다른 독자적인 特許法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운 物에 관한 발명인 경우 그 제조방법이 캐나다에서 이미 特許가 나와있는 특허를 이용했을 때는 간접 特許 침해로 간주 特許權者에게 로열티를 물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캐나다에서는 세계적으로 중요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발명 보호를 위해 特許法 개정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작권법상의 확대 또는 特許法上의 유효한 보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널드 벨 변리사는 캐나다에서 特許權을 획득한 후 3년 이내에 캐나다내에서 발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권리 남용으로 인정돼 캐나다 정부가 제3자에게 그 발명의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 상표제도는 정상적인 상표권 보호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한 로널드 벨씨는 ① 상표가 캐나다에서 사용된 경우 ② 캐나다에서 사용되지 않았지만 상표 사용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출원자의 自國에서 사용되는 경우 ④ 상표가 저명하여 캐나다에 널리 알려진 경우등에 한해 캐나다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對韓기술진출 급증세 — 을 외국기업 遺傳工學 特許출원 27件 —

對韓기술진출을 겨냥한 外國기업들의 유전공학 특허출원이 크게 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特許廳에 따르면 첨단과학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유전공학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세를 보여 올들어 상반기중 이미 27건이 출원, 지난해 실적(30건)을 육박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79년 이분야에 처음으로 특허가 출원된 이래 금년 6월 말 현재 총출원 건수는 11개국 1백 16건에 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美國이 55건, 日本이 24건, 서독이 11건으로 주로 선진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2건, 금년 1건등 3건에 불과, 상당한 기술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의 출원건수가 지난해보다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 28건중 27건이 외국인 출원인점은 감안할경우 特許독점에 따른 상당한 압박이 예상돼 이의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다.